

중국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 연구*

楊 喆**

<목 차>

1. 서 론
2. 분석틀과 연구대상
 - 2.1 분석틀
 - 2.2 연구대상
3. 분석 결과
4. 결론 및 함의

1. 서 론

2013년 9월과 10월 시진핑 주석은 카자흐스탄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각각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이후 중국정부는 제18기 3중 전회에서 일대일로 건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공식적으로 명시하였고, 2014년에는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들과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협력에 합의하는 한편, 브릭스개발은행(NDB) 및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 준비, 실크로드기금 조성 등 일대일로 시행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꾸준히 전개해왔다.

이러한 준비과정을 통해 2015년 2월, 일대일로 건설 공작영도소조를 설립

* 본 논문은 2017년 6월 10일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주제: 인문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중국의 일대일로와 사드)에서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수정 및 보완하여 작성했다.

** 成均館大學校 成均中國研究所 研究教授

한데 이어, 동년 3월에는 실크로드 경제벨트 및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위한 비전 및 행동을 발표하였고, 7월과 12월에는 각각 NDB와 AIIB를 창설하였다. 2016년에 들어서는 제13차 5개년 계획에 일대일로 구상을 핵심적인 국가사업으로 명시하였고, 동년 6월에는 베이징에서 제1차 AIIB 연차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한국의 언론 보도를 통해 우리에게 꾸준히 전달되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제창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동북아평화화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과의 연계하며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6년 7월 8일, 한국과 미국이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하였고, 뒤이어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며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중국, 혹은 한중관계의 이슈는 사드 배치로 인한 갈등으로 국한되었다.

일대일로가 한국 언론에서 재차 관심을 받기 시작한 시기는 신정부 출범 이후, 박병석 의원이 한국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참여한 5월 중순이다. 한국 언론에서는 시진핑(習近平) 주석, 양제츠(楊潔篪) 국무위원 등 중국의 고위층과 회동을 가진데 이어, 특사단을 파견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복원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기 시작했고, 일대일로의 중요성, 협력의 필요성과 관련된 보도들도 접하게 되었다.

한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멀어진 일대일로가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사실 한국 내 사드 배치가 결정된 7월 이후에도,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행동을 지속해 왔다. 2016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일대일로 구상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이 최초로 통과되었고, 중국 국내에서는 광저우(廣州), 시안(西安), 선양(瀋陽) 등 다양한 지역에서 일대일로와 관련된 무역 및 상품 박람회, 국제학술세미나 등을 개최되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일대일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의 지지를 도모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협력을 위한 기반도 구축하였다.

중국이 지속적으로 일대일로와 관련된 활동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중요하고 협력이 필요하다던 일대일로에 대한 관심도가 어느 순간 급

감했다가 재차 급증한 원인은 무엇일까? 물론 한국 내 사드 배치가 표면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사드 배치가 발표된 시기를 기점으로 사드 배치와 관련된 보도 이외에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감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대일로에 대한 보도 건수가 요동치는 변화가 나타난 바, 사드 배치가 일대일로의 관심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기는 무리가 따른다. 이와 함께 일대일로의 중요성, 협력의 필요성과 관련된 보도들이 재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일대일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이러한 인식이 과연 중국의 심층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2차 의제설정 이론, 즉 속성 의제설정 이론을 분석틀로, 주요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해답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분석틀과 연구대상

2.1 분석틀

정치학 혹은 국제정치학 분야에서 정치와 미디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대표적인 연구방법으로는 틀짓기 이론(Framing Theory), 점화 효과(Priming Effect), 침묵의 나선이론(Spiral of Silence)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언론사의 보도 프레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의제설정 이론을 분석틀로 적용하였다.¹⁾

1) 프레임과 의제설정의 개념적 논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두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의거하여 개념의 범주를 설정하여 진행한 연구가 주를 이루지만, 보도의 패턴들이 공중 의제에 대해 대중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미디어의 내용과 독자의 인식의 상관관계를 다룬다는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함. (McCombs, 2000; McCombs & Ghanem, 2001; Hester & Gilson, 2003; 이동훈, 2007)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프레임과 의제설정이 상이한 이론적 배경과 연구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특정한 주제를 선택하고 강조함으로써 대중들에게 중요한 의제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 즉 미디어가 강조한 의제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되었다.²⁾ 의제설정 이론은 크게 다섯 단계의 이론적 발전 과정을 거쳐 왔다.³⁾ 첫 번째 단계는 언론이 공중의제의 현저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Shaw & McCombs, 1977; Son & Weaver, 2006)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의제설정 효과에 관여하는 외적 요인에 대한 연구(Wanta, 1997; Weaver, 2000; Matthes, 2006; McCombs, 2014)이다. 세 번째 단계는 언론의 공중의제 가운데 속성의 현저성에 관한 연구(King, 1997; Yioutas & Segvic, 2003; Wanta, Golan & Lee, 2004; 반현, 2004; McCombs, 2014)이고 네 번째 단계는 언론의제의 근원 추적 및 의제설정 효과의 영향(consequences)에 관한 연구(반현, 최원석, 신성해, 2004; Weaver, 2007; Sheaffer, 2007; McCombs, 2014)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그 관계를 조망한 연구⁴⁾로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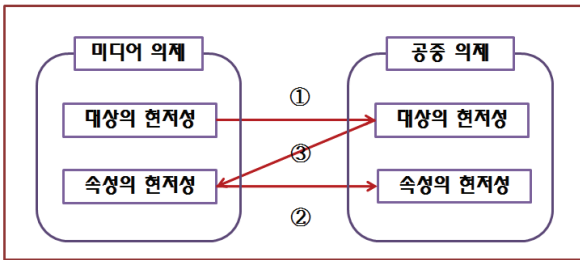
이 중 본 연구는 세 번째 단계인 공중의제가 속성의 현저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2차 의제설정 이론(Attribute Agenda Setting Effects), 즉 속성 의제설정 이론을 분석틀로 활용하였다. 기본적으로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단순히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여과하고, 이로 인해 미디어가 집중적으

방법을 가진다는 점(Scheffele, 2000; 양선희, 2008), 의제설정과 달리 프레임은 수용자의 인지적 스키마(Kim, Scheffele & Shanahan, 2002) 등이 중시된다는 점에서 프레임과 의제설정을 개별적인 개념으로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함.

- 2) McCombs, M. E. & Shaw, D. L.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 1972, pp.176-187.
- 3) 이러한 유형 분류는 McCombs M. E. A look at agenda-setting: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ism Studies* 6(4), 2005, pp.543-557; 반현, McCombs, M. E., <의제설정 이론의 재고찰 - 5단계 진화 모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2007, pp.7-53.의 분류 방법을 따름.
- 4) 맥콥스(2014)는 이러한 요인을 정보원, 매체 간 의제설정(intermedia agenda setting effects), 미디어의 내적 요인으로 분류하였으며, 아이엔가(Iyengar, 1993), 밀러(Miller, 2000) 등은 공중의 태도, 여론, 행동 등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관계를 조망하였으며, 양선희(2008)는 미디어 노출, 개인적 특성(심리상태, 관심도, 소속감 등), 미디어에 대한 신뢰도로 분류하기도 함.

로 보도하는 이슈에 대해 대중은 다른 이슈보다 더 중요한 이슈로 인식하게 한다는 것이 전제이다. 이러한 전제를 기반으로 1차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가 강조하는 의제의 양적인 측면이 수용자의 의제의 현저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2차 의제설정 이론은 미디어의 특정한 주제를 대중이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의제의 속성이나 질적인 특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⁵⁾ 따라서 2차 의제설정의 효과는 무엇에 대해 생각할 것인가(What to think about)의 단계를 넘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How to think)로 전환된다.(McCombs, 2014)

그림 1. 2차 의제설정 이론



주: ① 전통적 의제설정(1차 의제설정 효과), ② 2차 의제설정(속성 의제설정 효과), ③ 부차적 효과(Compelling Argument)
출처: McCombs, M. E., Setting the Agenda(2004)

1차 의제설정에서 대상의 현저성이 전이되는 것과 동일하게 2차 의제설정에서도 미디어가 대상의 속성 중 특징적인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그 대상의 속성을 현저하게 만든다고 인식한다. 이러한 특성이 그림 1의 ③에 해당하는 부차적 효과(Compelling Argument)이다. 이는 대중이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메시지를 해석할 때, 어떠한 속성이 다른 속성들보다 자신과 관련이 많을 경우 그 속성들은 특정 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현저성에도 효과를 미친다는 의미이

5) 가넴(Ghanem, 1997), 맥콤스(2000) 등에 따르면, 의제의 속성은 인지적 속성(cognitive attribute)과 정서적 속성(affective attribute)로 분류됨. 인지적 속성은 이슈의 개념, 사실 등 정보와 연계되어 있는 반면, 정서적 속성은 논조(tone), 기준 등 의견과 연계되어 있는 특징이 나타남.

다.(McCombs, 2014)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 변화 역시 동일하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적인 가설이다.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의 악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추진동력 약화 등의 요인으로 언론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중요성이 희석되었다고 인식함에 따라 일대일로에 대한 보도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다. 이와 함께 언론이 일대일로의 속성을 특정 분야로 한정하여 인식하였다는 것이 두 번째 가설이다.

2.2 분석대상

상술한 가설을 증명하고자 2013년 9월 이후, 정확하게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하여 육상 경제벨트를 제시한 9월 7일 이후부터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개최 소식을 다룬 5월 10일까지의 한국 언론의 일대일로 보도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⁶⁾ 매체 범주는 총 60개 매체를 방송/통신, 일간지, 인터넷 언론, 경제전문지로 분류하였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언론재단의 빅카인즈를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일대일로와 관련된 기사, 즉 개체 수가 너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정확한 키워드 분석이 되지 않았는지 관계가 없는 사안들이 관계도에 노출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또한 주요 일간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분석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언론 분류에 의거하여 매체 범주를 확정하였다.

표 1. 분석대상 범주

| 범 주 | 개체수 | 범 주 | 개체수 |
|--------|-----|------|-----|
| 방송/통신 | 12 | 일간지 | 12 |
| 인터넷 언론 | 13 | 경제신문 | 23 |

6) 보도의 제목이 아닌 보도 내용이 분석대상이며, 단순히 일대일로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보도가 아닌, 내용이 일대일로 구상과 연계된 보도를 분석대상으로 간주하였음을 밝힘.

| 범 주 | 개체명 |
|--------|--|
| 방송/통신 | KBS, MBC, SBS, SBS CNBC, JTBC, TV조선, YTN, MBN, OBS, 연합뉴스, 뉴스1, 뉴시스 |
| 일간지 |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매일일보, 문화일보, 세계일보, 아시아투데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 경제신문 | 건설경제신문, 글로벌이코노믹, 뉴스토마토, 뉴스핌, 더벨,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에너지경제, 이데일리, 이투데이, 조선비즈,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디지털타임즈, 브릿지경제, 더스쿠프, 비즈니스위치, 한경비즈, 아이티투데이, 이코노믹리뷰 |
| 인터넷 언론 | 노컷뉴스, 뉴데일리, 데일리안, 아시아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미디어펜, 데일리한국, 시선뉴스, 브레이크뉴스, CNB, EBN, 시사HN |

표 1의 매체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신실크로드, 신 실크로드, 육상 경제벨트, 해상 실크로드, 一帶一路(간체 포함), OROB(One Road One Belt)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며 약 30만 건의 기사가 검색된다. 이 중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된 보도만 선별하고 중복된 기사들을 제외한 약 2,250 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원자료(raw data)를 구축하였다. 동 원자료를 유목별로 분류하고, 텍스트마이닝(Text mining)하여 키워드 및 빈도수 분석을 시도한 후 이를 텍세도(Tagxedo)를 활용하여 시각화했다.

3. 분석 결과

먼저 매체 범주별 보도 현황을 보면, 경제전문 매체의 보도가 823건으로, 전체 매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간지(583), 방송/통신(421) 등이 뒤를 이었다. 사드 배치 결정 전후를 비교했을 때 전체 보도량은 23% 증가하였고, 각 매체별로 12~27%의 증가율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방송사의 보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전문 채널인 SBS CNBS의 보도를 제외하더라도 SBS가 일대일로에 대해 가장 많이 보도했으며 KBS, YTN, JTBC 등의 보도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 매체에서 방송보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6%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지상파의 보도비율은 15%에 불과했다. 주요 일간지의 보도 현황을 보면 중앙일보가 전체 일간지 보도의 18%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이 일대일로에 대해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매체범주별 보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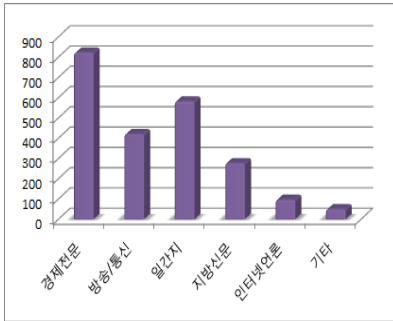


그림 3. 매체범주별 보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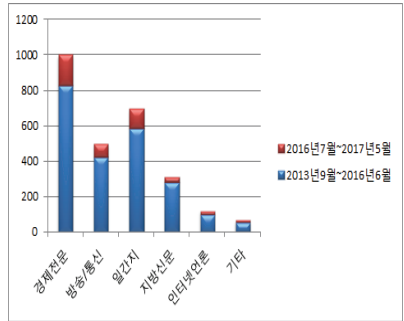


그림 4. 방송사별 보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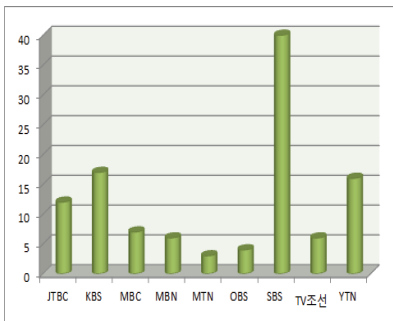


그림 5. 방송사별 보도 증가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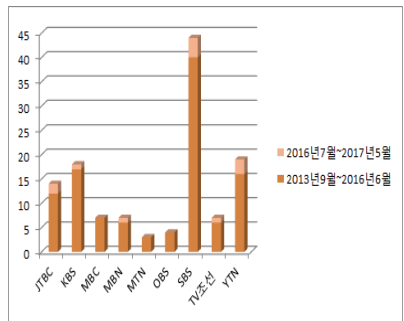


그림 6. 주요 일간지 보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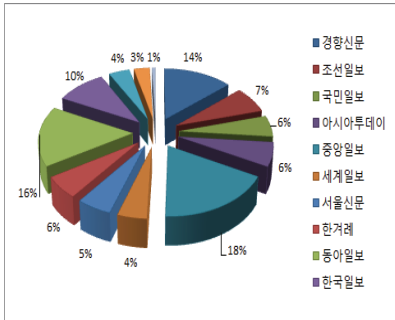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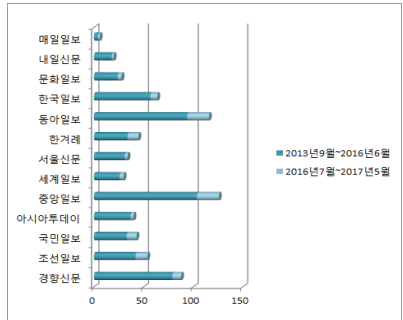


그림 7. 주요 일간지 보도 증가량



영역별 보도는 각 매체에서 분류한 범주를 기반으로 경제, 국제, 정치, 사회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국제 영역은 세계, 월드, 글로벌, 해외 등의 카테고리 분류된 보도를 포함하였고, 금융, 경제, 산업 등은 경제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정치의는 주로 중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된 보도를 포함하였으며 사회는 인문, 문화, 교류 등의 보도 내용을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국제 분야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았고, 경제, 사회, 정치 분야가 뒤를 이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사드 배치 결정 전까지 경제 분야에 대한 보도가 국제 분야에 대한 보도보다 많았으나 사드 배치 결정 이후 한중 관계, 미중 관계, 동북아 정세 등과 관련된 보도에서 일대일로에 대한 언급이 증가하며 국제 분야에 대한 보도가 급증(40%)하였다.

그림 8. 영역별 보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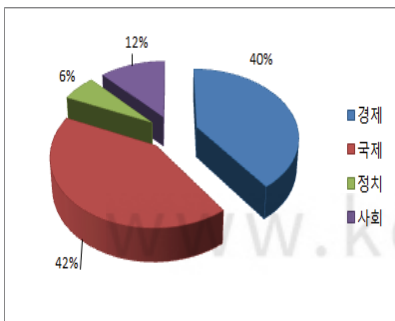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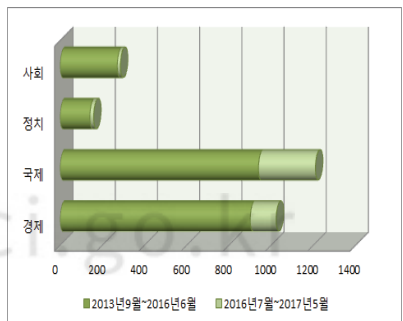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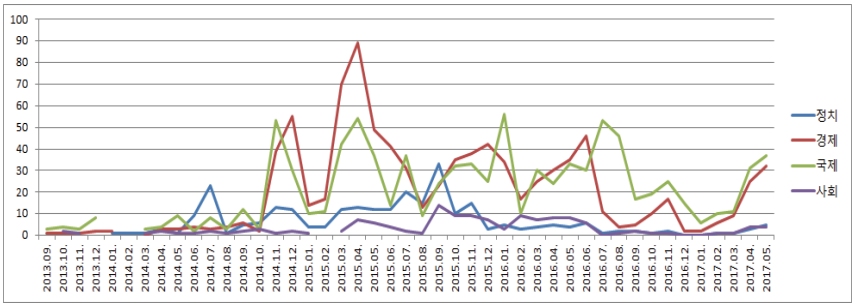


그림 9. 영역별 보도 증가량



2013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한국 언론에 나타난 일대일로에 대한 보도현황을 시기별로 시각화한 결과, 2015년 들어 급격하게 증가했다가 사드 배치가 결정되고 약 두 달 후인 2016년 9월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나타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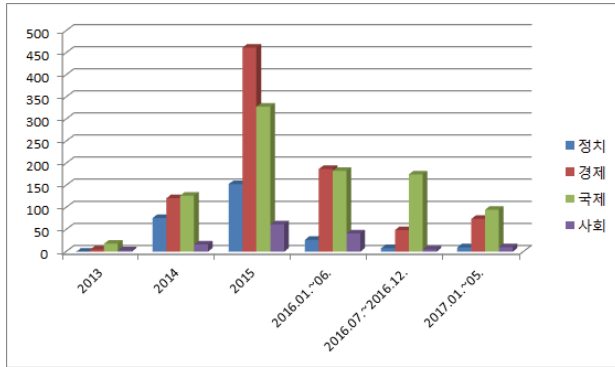
그림 10. 일대일로에 대한 보도 건수 변화 추이



시기별 추이를 세분화하여 월별로 분석한 결과,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2014년 7월에 즈음하여 일대일로와 관련된 정치 분야의 보도가 급증하였다. 이는 당시 한국 언론이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일대일로를 정치적인 이슈로 인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한 2014년 11월에 경제와 국제 분야에 대한 보도가 급증한 요인으로는 당시 베이징에서 2014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고, 이를 계기로 한중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일대일로에 대한 분석 보도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5년 4월에서 5월을 기점으로 일대일로와 관련된 경제 분야 보도가 정점에 이르렀는데, 이는 당시 중국이 러시아와 고속철 개통 합의, 파키스탄에 50조 투자, 6대 경제회랑 추진, 리커창(李克強) 총리의 남미 순방, 인도 모디 총리의 방중 등이 겹치며 중국의 거침없는 경제행보를 비중 있게 보도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11. 일대일로에 대한 분야별 인식 변화(연도별)



주목할 만한 점은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약 두 달 동안 한중 관계를 둘러싼 중미 관계, 동북아 정세 등의 이슈로 인해 일대일로를 통한 협력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분석 보도가 증가하였고, 이를 기점으로 일대일로와 관련된 보도가 점차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2013년 9월 이후 경제 분야에 대한 보도가 가장 많은 추세에서 한국 내 사드 배치 결정을 기점으로 국제 분야에 대한 보도가 경제 분야에 대한 보도를 추월했다는 사실을 통해 한국 언론에서 경제적인 사안이 아닌 한중관계 혹은 한중협력과 연계된 국제적인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보도 자료의 기사 내용을 기반으로 주요 키워드의 빈도수를 도출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는 중국, 한국, 일대일로를 제외한 AIIB, 인프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투자, 협력, 기업 등의 빈도수가 높았고, 국제 분야에서는 한중관계, 미중관계, 동북아, 전략, 북한 등의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전후를 비교한 결과, 경제 분야에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빈도수가 급감했다는 특징과 함께, 투자, 협력, 등의 빈도수가 감소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국제 분야에서도 경쟁, 갈등 등 부정적인 키워드가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협력이라는 키워드의 빈도수가 높은 이유는 협력을 저해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논조의 보도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2. 일대일로 관련 보도 내 분야별 주요 키워드

| 경제 분야(N=25,058) | | | 국제 분야(N=24,312) | | |
|-----------------|------------|-------|-----------------|------|-------|
| 순위 | 키워드 | 빈도 수 | 순위 | 키워드 | 빈도 수 |
| 1 | 중국 | 9,978 | 1 | 중국 | 6,015 |
| 2 | 일대일로 | 2,428 | 2 | 일대일로 | 1,917 |
| 3 | AIIB | 1,030 | 3 | 한중관계 | 1,356 |
| 4 | 한국 | 733 | 4 | 미중관계 | 1,332 |
| 5 | 인프라 | 708 | 5 | 실크로드 | 1,257 |
| 6 | 실크로드 | 690 | 6 | 협력 | 1,128 |
| 7 | 유라시아 아니셔티브 | 498 | 7 | 동북아 | 1,014 |
| 8 | 투자 | 195 | 8 | 전략 | 780 |
| 9 | 러시아 | 435 | 9 | 미국 | 777 |
| 10 | 미국 | 360 | 10 | 시진핑 | 723 |
| 11 | 협력 | 303 | 11 | 북한 | 696 |
| 12 | 기업 | 273 | 12 | 갈등 | 666 |
| 13 | 유럽 | 260 | 13 | 경쟁 | 618 |
| 14 | FTA | 243 | 14 | 일본 | 522 |
| 15 | 금융 | 235 | 15 | 군사 | 486 |

그림12. 사드 배치 결정 전후의 키워드 빈도수 변화



사드 배치 결정 전



사드 배치 결정 후

이와 함께, 한국 언론에서는 해상실크로드보다 육상경제벨트에 관한 보도가 더욱 많았다. 육상경제벨트 관련 보도가 전체 보도 가운데 약 65%를 차지한

반면, 해상 실크로드는 29%에 불과했다.⁷⁾ 이는 보도 자료에 나타난 중국 지역별 빈도수와 맥을 같이 한다. 보도 자료에 나타난 성(省)별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 산시(陝西), 쓰촨(四川), 지린(吉林) 등의 빈도수가 높았고, 동북3성이라는 키워드의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시(市)별 키워드에서는 시안(西安), 충칭(重慶), 훈춘(琿春), 청두(成都) 등의 높은 빈도수를 나타냈다. 주로 육상 실크로드의 거점 지역인 내륙지역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와 연계 가능성을 타진한 동북지역의 빈도수가 높았다는 점에서 육상 경제벨트를 더욱 중점적으로 보도한 사실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3. 각 공간별(육상, 해상, 공상) 주요 키워드 분포 및 빈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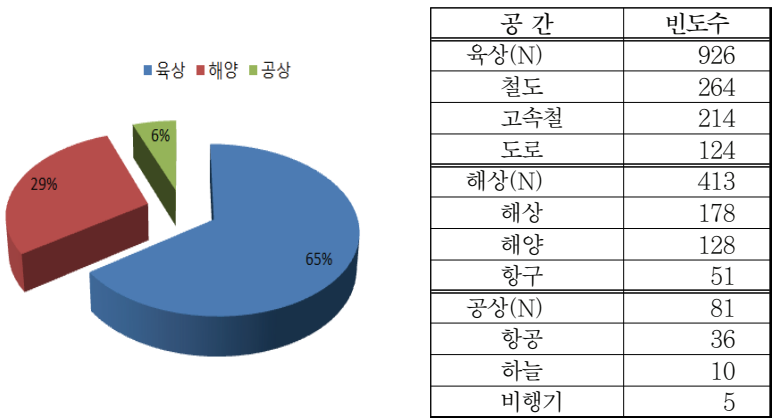


표 3. 각 지역별 키워드 빈도수 현황

| 성(省)(N=509) | | | 시(市)(N=794) | | |
|-------------|--------|------|-------------|--------|------|
| 순위 | 키워드 | 빈도 수 | 순위 | 키워드 | 빈도 수 |
| 1 | 산시(陝西) | 90 | 1 | 시안(西安) | 264 |
| 2 | 쓰촨(四川) | 49 | 2 | 충칭(重慶) | 68 |
| 3 | 지린(吉林) | 40 | 3 | 훈춘(琿春) | 62 |
| 4 | 윈난(雲南) | 34 | 4 | 청두(成都) | 58 |

7) 육상, 철도, 철도, 도로, 고속철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육상경제벨트로 분류하였고, 해양, 해상, 바다, 항구, 항만, 바다 등과 관련된 키워드를 해상실크로드로 분류함. 공상은 항공, 하늘, 비행기, 공항 등을 키워드로 선정하였음.

| | | | | | |
|----|------------|----|----|----------|----|
| 5 | 신장(新疆) | 34 | 5 | 상하이(上海) | 41 |
| 6 | 동북3성(東北三省) | 31 | 6 | 렌윈강(連雲港) | 32 |
| 7 | 헤이룽장(黑龍江) | 27 | 7 | 란저우(蘭州) | 28 |
| 8 | 간쑤(甘肅) | 27 | 8 | 칭다오(青島) | 28 |
| 9 | 허베이(河北) | 23 | 9 | 하얼빈(哈爾濱) | 24 |
| 10 | 광둥(廣東) | 23 | 10 | 광저우(廣州) | 22 |

4. 결론 및 함의

한국 언론에서 보도한 일대일로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시간 추이 혹은 주요 사건에 따라 인식의 변화가 발생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일대일로를 국제 이슈나 경제 이슈로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일대일로 구상이 제시된 이후 사드 배치 결정전까지 줄곧 경제 이슈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사드 배치 결정을 기점으로 국제 이슈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 언론에서는 육상 경제벨트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으며 이에 따라 시안, 충칭, 훈춘 등 내륙지역과 동북지역을 중점 지역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두드러졌다. 이를 통해 언론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일대일로와 연계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즉 언론이 일대일로의 육상 경제벨트라는 특정 속성에 대한 현저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육상 경제벨트가 대중들에게 더욱 중요한 이슈라고 인식하게 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일대일로에 대한 보도가 급감하다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일대일로에 대한 보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났다. 한중관계가 양호했던 2016년 중반까지 일대일로의 중요성과 연계 필요성을 강조해 오던 수많은 보도들이 사드 배치 결정과 함께 급격히 감소하였고, 언론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한중 관계의 악화와 양국의 갈등만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동기간 동안 중국은 지속적으로 일대일로와 관련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일대일로의 역할과 중요성을 제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언론에서는 일대일로 관련 보도가 오히려 감소되었다. 이러한 언론의 대응(무관심, 관심도 하락 혹은 대상에 대한 인식 전환)은 일대일로의 현저성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일대일로라는 이슈가 다른 중국 이슈들에 비교해 중요도가 높지 않다고 인식하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본 연구가 개진한 한국 언론의 일대일로에 대한 인식을 한국 전체의 인식으로 간주할 수 없다. 중국 전문가 또는 정책 결정자들의 인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는 향후 동일한 기법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을 통해 원자료를 구축하여 추후 진행하고자 한다.

한편, 일대일로에 대한 한국 언론의 인식 변화와 보도량 변화를 통해 사드 문제에 대한 보도를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신정부 출범 이후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 대표단 파견, 특사 파견 등을 통해 악화된 한중 관계가 점차 개선될 것이고, 중국의 경제 제재조치도 완화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드 배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한중 관계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구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여전히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보도량을 감소함으로써 대중들이 일대일로라는 대상이 더 이상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고 인식하게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중 관계가 개선된 것과 같은 사례들을 중점적으로 보도함으로써 대중들이 한중 관계가 개선된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정책 결정이 여론의 향방에 좌우된다는 사실에 비추어보면, 일반화되지 않은 언론 보도가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인식이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의 이슈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명확한 보도가 필요하다.

< 參考文獻 >

- 반현(2004), <선거후보자의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2차 의제설정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8권 4호, 175-197.
- 반현·최원석·신성혜(2004), <뉴스의 속성과 2차 의제설정 효과 연구: 위도 핵폐기장 보도를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25호, 65-102.
- 반현·McCombs, M. E.(2007), <의제설정 이론의 재고찰 - 5단계 진화 모델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3(2), 7-53.
- 양선희(2008),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의제설정효과 - 신문, TV, 포털의 비교>, 《한국언론학회보》 52(4), 81-104.
- 이동훈(2007), <뉴스수용자에 대한 포털뉴스의 의제설정효과 연구: 복핵보도 관련 종이신문의 의제전이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1권 3호, 328-357.
- Ghanem, S. (1997), Filling in the tapestry: The second level of agenda setting. In McCombs, M. E., D. L. Shaw, & D. H. Weaver (Eds.) *Communication and Democracy: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s in Agenda-setting Theory*. Mahwah, NJ: Lawrence Erlbaum.
- Iyengar, S., Simon, A. (1993), News coverage of the Gulf crisis and public opinion. In Iyengar, S. & Reeves, R. (Eds.) *Do the Media Govern?* Thousand Oaks, CA: Sage.
- Hester, J. B., Gibson, R. (2003), The economy and second-level agenda setting: A time series analysis of economic news and public opinion about the economy.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 73-90.
- Kim, S. H., Scheufele, D. A., & Shanhan, J. (2002), Think about it this way: Attribut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press and the public and the public's evaluation of a local issue.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79, 7-25.
- King, P. (1997), The press, candidate images, and voter perceptions. In M. McCombs, D. Shaw, & D. Weaver (Eds.), *Communication and democracy: Exploring the intellectual frontiers in agenda setting theory*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Matthes, J. (2006), The need for orientation towards news media: Revising and validating a classic concept.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 422-426.

- McCombs, M. E. & Shaw, D. L. (1972), The agenda-setting function of the mass media, *Public Opinion Quarterly* 36, 176-187.
- McCombs, M. E., Lopez-Escobar, E., & Llamas, J. P. (2000), Setting the agenda of attributes in the 1996 Spanish general elect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0(2), 77-92.
- McCombs M. E. (2005), A look at agenda-setting: Past, present and future. *Journalism Studies* 6(4), 543-557.
- McCombs M. E. (2014), *Setting the Agenda: Mass Media and Public Opinion*, 2nd Edition. Malden, MA: Blackwell.
- Miller, J. (2007), Examining the mediators of agenda setting: A new experimental paradigm reveals the role of emotions. *Political Psychology* 28, 689-717.
- Scheufele, D. (2000), Agenda-setting, priming and framing revisited: Another look at cognitive effects of political communication. *Mass Communication & Society* 3, 297-316.
- Shaw, D. L., McCombs, M. E. (1977), *The Emergence of American Political Issues*. St. Paul, MN: West.
- Sheafer, T., Weimann, G. (2005), Agenda building, agenda setting, priming, individual voting intentions, and the aggregate results: An analysis of four Israeli elections. *Journal of Communication* 55, 347-365.
- Sheafer, T. (2007), The role of story evaluative tone in agenda setting and prim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7, 21-39.
- Son, Y. J., Weaver, D. H. (2006), Another look at what moves public opinion: Media agenda setting and polls in the 2000 U.S. ele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Opinion Research* 18, 174-197.
- Wanta, W. (1997), *The public and the national agenda: How people learn about important iss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Wanta, W., Golan, G., Lee, C. (2004), Agenda setting and international news: Media influence on public perceptions of foreign nation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1(2), 364-377.
- Weaver, D. H. (2007), Thoughts on agenda setting, framing, and priming.

Journal of Communication 57, 142-147.

Yioutas, J., Segvic, I. (2003), Revisiting the Clinton/Lewinsky scandal: The convergence of agenda setting and framing.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80, 567-582.

< Abstract >

A Study on the Korean Media's Perception of China's OROB Initiative

Yang, Chul

This paper examines how Korean media has become aware of 'One Belt, One Road(OBOR)' initiative, by analyzing the trend of press release in Korea about 'OBOR' initiative which is the China's national strategy in the Xi Jinping era. The importance and the understanding of 'OBOR' initiative are ris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various activities in China have been held to support 'OBOR' initiative. Despite the circumstance, the volume of Korean press release on 'OBOR' initiative had plummeted, and now seems to be increasing as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China is expected to recover after the inauguration of new government in Korea.

This paper utilized the second level agenda-setting theory to analyze a correlation between the political science and media. It analyzed the keywords extracted from the news articles of 60 media in Korea from September 2013 to May 2017 that are related with 'OBOR'. This paper is significant to confirm the areas of interest and the change of perception of Korean media on 'OBOR' initiative by discovering the regional keyword, the change of keywords in each sector, and the current state and the growth rate of press release in each sector and type of media. Furthermore, This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the change in the perception of bilateral media on different issue such as THAAD deployment

can enlarge extensionality on study.

Key words: China, OROB, Korea, Media, perception

| 원고접수일 | 심사일정 | 1차수정 | 게재확정 | 출간 |
|---------------|---------------|---------------|---------------|---------------|
| 2017. 07. 31. | 2017. 08. 20. | 2017. 09. 01. | 2017. 09. 04. | 2017. 09. 30. |

